

“나는 상식의 함정을 안다”, 고로 장애물이 없다

- 우리는 상식을 아무런 의심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곤 한다. 그런데 조금만 깊이 들어가 보면 상식 안에 수많은 오해와 편견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. 상식은 시야를 가로막는다. 모든 장애물은 우리 자신이 만드는 것이다. 마음속이 투명하고 잡티가 없다면 이 세상과 세상 밖 모두를 분명하게 볼 수 있을 것이다.
- 상식을 벗어던지면 더 심오하고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다.
- 마음이 밖으로 도망치면 잡초 속에 있는 것과 같고, 마음이 자기 본성을 지키면 문턱이 사라져 한 걸음 내딛기만 해도 사방 만리에 풀이 없으니 동쪽으로든 서쪽으로든 갈 필요가 없다.